



# 설명자료

보도일시	<b>배포 즉시</b>		
배포일시	2019. 8. 7.(수)	대변인실	044-203-6572
담당과	고등교육정책과	담당과장	김도완 (044-203-6917)
		담당자	정상은 서기관 (044-203-6918) 배효진 서기관 (044-203-6809)

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입니다.

## 학생인구 급감에 대응하여 대학의 자율혁신으로 교육의 질 제고와 적정규모화를 추진하겠습니다.

- '21년 진단에서 지역균형 고려, 지역대학 참여 재정지원사업 신설 추진 -

- 언론시명 / 보도일시 : 조선일보백세미, 서울신문백재홍, 김소래 / '19. 8. 7. (수)
- 제목 : 87개大 신입생 없을텐데... 알아서 하라는 교육부  
대학 정원 자율화.. 인구 급감 예측에 '인위적 감축' 손 댔다.

### <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>

- 교육부는 2019.8.6.(화), 인구구조 변화 및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「대학혁신 지원방안」 발표를 통해 '혁신의 주체로 서는 대학, 대학의 자율혁신을 지원하는 지역과 정부'라는 고등교육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면서,
  - 정부의 인위적인 정원감축 없이 대학이 스스로 판단하여 수립한 계획을 통해 적정규모를 실현하도록 지원한다는 정책기조를 밝힌 바 있습니다.
- 이에 따라, 2021년 대학기본역량 진단에서는 진단지표 중 신입생·재학생 충원을 비중을 확대하여, 대학이 대학별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수립한 발전계획에 따라 적정 수준의 정원 규모와 진단 참여 여부까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.

○ 또한, 지역대학을 배려하여, 일반재정지원대학 선정 시 권역 비율을 확대하는 등 지역대학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을 추진할 예정입니다.

※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관련 세부적인 내용은 「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기본계획(시안)」에 포함하여 '19.8.14.(수)에 발표할 계획입니다.

□ 이와 동시에, 교육부는 재정당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역사회·산업과 연계·협력하여 지역대학이 교육·연구 역량을 제고하고 지역과 함께 발전하도록 지원하는 재정지원사업((가칭)지자체-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)을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중입니다.

□ 교육부는 학생인구가 급감하는 위기 상황에서, 대학이 자율혁신을 통해 대학의 여건에 따라 정원규모를 조정하고, 미래사회 변화에 부합하는 인재양성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.



이 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 정상은 서기관(☎044-203-6918), 배효진 서기관 (044-203-6809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